Digital & IT

'테더링 서비스' 확산

스마트폰을 무선모뎀 처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척척'

SKT·KT·LGT 선점 경쟁… 이용땐 정액요금제 필수

야외활동 중 노트북을 이용해서 회사에 급한 문서를 보내야 하는데 인터넷을 쓸 수 없는 장소에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가까운 PC방으로 뛰어가거나 무선 인터넷이 되는 곳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무선모뎀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바로 휴대전화다.

아이폰 등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모뎀으로 활용, 어떤 장소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테더링(Tethering Service)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와이브로나 아이 플러그(i-Plug) 등 별도의 무선 모뎀이 있어야 노트북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 안에 설치된 테더링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를 무선모뎀처럼 써서 노트북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다. 테더링 서비스는 SK텔레콤은 T옴니아2, KT는 아이폰과 쇼옴니아, LG텔레콤은 오즈옴니아 등 스마트폰에 탑재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무선모뎀 기능 가능= SK텔레콤에서 테더링이 지원되는 기기 사용자는 데이터 정액제 및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해 정해진 데이터 사용량 내에서 자유롭게 테더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거나 정액제 및 스마트폰 요금제 비가입자의 경우 1MB당 3천원에 달하는 요금을 내고 쓸 수 있다.

KT와 LG텔레콤은 테더링 지원 기기 사용자가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정해진 데이터 사용량 내에서 테더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 시 또는 스마트폰 요금제 비가입자는 1MB당 51원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폰 i-라이트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월 500MB의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테더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500MB 한도 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KT는 향후 일반폰에서도 테더링을 허용할 계획이어서 일반폰을 통해 테더링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유진(여·29·순천시)씨는 "시내에는 무선인터넷이 설치된 곳이 많지만 시외를 벗어나면 노트북으로 인터넷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 자주 테더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매번 남아서 고민이었는데 노트북과 겸용해서 쓰니 돈과 시간을 절약, 일석이조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요금폭탄 조심…서비스 장애도 우려= 테더링 서비스를 자주 이용할 경우 정액제 이용은 필수다.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로 테더링을 이용할 경우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무료로 사용하는 정액제를 다 사용하면 데이터량대로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1MB당 3천원, KT와 LG는 1MB당 51원이지만 무심코 장시간 사용하면 수천~수만원의 이용요금을 낼 수도 있다. 이용방법은 편해졌지만 사용자들의 아직 안심하고 쓰기는 이른 셈이다.

또 테더링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일정 지역에서 사용자가 몰릴 경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지국당 처리 용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통신 3사의 기존 네트워크 관리 능력이 향후 사용자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테이터통화에 허용되는 대역폭 할당 등에 인위적인 제한을 둘지 여부도 관건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황사철 선글라스 인기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4일 황사철을 맞아 1층 잡화매장에서 봄 유행할 선글라스를 선보였다. 백화점은 오는 18일까지 에스카다, 마이클 코어스, 에트로 등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를 최대 20% 할인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호남 우수조달업체 채용박람회

19~20일 전북조달청서… 53개업체 210명 충원

광주지방조달청과 전북지방조달청은 오는 19~20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조달청에서 '호남지역 우수조달업체 채용박람회'를 연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하이코리아, 버들시스템 등 호남지역 53개 우수조달업체가 참여해 210여개 일자리의 인력을 충원한다. 모집분야는 생산직·관리직·연구직 등 다양하며, 업체들은 회사 소개와 근무환경, 급여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개별면접을 통해 즉석에서 인력 채용을 할 예정이다.

유근성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정부 사업의 협력 파트너인 우수 조달업체는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고, 구직자들은 취업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마그네틱 카드론 돈 못찾는다

금감원 IC카드로 교체 추진

앞으로 카드 앞면에 정사각형 모양의 집적회로(IC)칩이 없는 현금·신용카드로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돈을 찾거나 이체할 수 없게 된다. 복제카드로 인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 당국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카드복제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성이 떨어지는 마그네틱카드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안성이 뛰어난 IC칩이 장착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IC칩이 장착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소유한 고객에 대해 마그네틱카드를 IC칩이 장착된 새 카드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개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마그네틱카드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光銀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지경부 2회연속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지식경제부가 인증하는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14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고객만족센터(콜센터)가 올해 서비스품질 평가에서 2007년에 이어 2회 연속 우수기업으로 뽑혔다. 3년마다 선정하는 우수기업인증을 연속받은 지방은행은 광주은행이 유일하다.

광주은행은 향후 3년간 대내외 홍보자료, 홍보 포스터 등에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사용,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CEO의 추진력과 리더십, 서비스전략 수립과 추진, 고객감동 서비스 실천 등이 호평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은 국내 유일의 정부 주관 서비스품질 인증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현장평가 및 고객평가, 암행평가 등을 통해 고객만족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기업에 수여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

공정위, 라면·커피·면세유 담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주요 현안 보고에서 "현재 라면과 커피, 면세유 등의 카르텔(담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생필품과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감시 대상으로 이들 업종을 지목했다. 공정위는 또 카르텔 적발 시 법인에 대한 조치 외에도 카르텔에 적극 가담한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400여개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자료 미제출 업체, 허위자료 제출 의심 업체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력거래소 이사장 염명천씨 선임

전력거래소는 제5대 이사장에 염명천(56) 전 지식경제부 지역특구기획단장을 선임했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시립대를 졸업한 염 신임 이사장은 행정고시(24회)에 합격한 뒤 경수로사업기획단 부장과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을 거쳐 지경부 지역특구기획단장을 역임했다. /연합뉴스